

결제·해제 상관말고 게으름없이 정진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鐵牛耕破洞天(철우경파동천)하니
桃花片片出深源(도화편편출심원)이라
秦人一去無消息(진인일거무소식)이나
千古峰巒色轉新(천고봉란색전신)이로다.

철로 만든 소가 동중천을 갈아 없애니
복숭아 꽃잎들이 깊은 근원에서 나오이
라.
진나라 사람은 한 번 곁에 소식이 없음
이나
천년 봉우리들은 빛깔이 전전히 새로움
이로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석두(石頭)·마조(馬祖) 두 선지식이 쌍벽을 이루
어 부처님 심인법(心印法)을 선양하며 천
하를 횡행하였는데, 그 아래 무수의 도인
(道人)이 쏟아져 나와 중국 천하를 덮은 때
가 있었다. 당시에 방거사(龐居士)라는 철

저히 신심있는 단월가(檀越家)가 있어 나
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도인이 되어
야겠다' 작심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수
백리를 걸어서 석두 선사를 찾아가셨다.

찾아가 석두 선사께 예삼배를 올리고 여
쭉하기를,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하니, 석두 선
사께서 물음을 채 끝나기도 전에 손으로
방거사의 뺨을 입을 틀어막으셨다.
얼마나 고준한 진리의 안목을 갖추었
기에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벗을 삼지 아
니한 자라고 하는가. 바로 이 말 끝에 방
거사는 진리의 눈이 팔부(八部)가 열리
었다.

그래서 “선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올리고는 또다시 수 백리를
걸어 마조 선사를 친견하려 갔다. 도착하
여 마조 선사께 예삼배를 올리고는 석두
선사께 물었던 것과 같이,
“만 가지 진리의 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 하고 여쭙니,

마조 선사께서는 입을 틀어막지 아니하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서강수(西江水)의 물을 한 입으로
다 마셔버리고 온다면 그때에 그대를 향
해 일러주리라!”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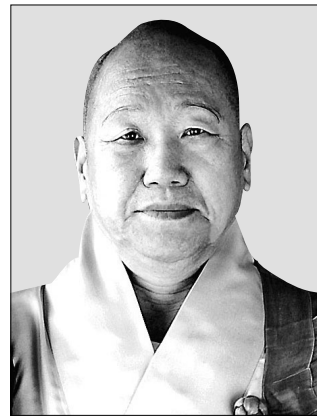
이 말 끝에 방거사가 여지없이 견성대오
(見性大悟)하였다. 이로써 진리를 깨달은
마조 도인의 재가(在家)제자가 된 것이다.

〈중략〉
방거사가 그렇게 일생을 멋지게 살다가
하루는 세연(世緣)이 다한 것을 알고는 좌
복에 앉아 있다가 팔 영조가 들어오니 말
씀하셨다.

“내가 오늘 정오(正午)에 열반(涅槃)에
들 것이니 정오가 되었는지 밖에 나가서
해를 보고 오나라!”

이에 영조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오늘은 일식(日食)이 되어서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나가서 보고 오
지.”



이렇게 방거사가 밖에 나간 사이에 팔
영조가 아버지 좌복에 앉아서 훌륭히 이
몸뚱이를 벗어버렸다. 그러자 밖에 나가
다 들어온 방거사가 이 모습을 보고 칭찬
하였다.
“이 요물이 나를 속였구나! 장하다. 내
팔이여! 천성 나는 너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열반에 들어야겠구
나.”
이렇게 말을 하시고는 팔을 화장하고 일

주일 후에 일생을 같이 도를 닦았던 도반
(道伴)보살이 있었지만 간다온다 말도 없
이 좌복에 앉아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셨
다. 때마침 이웃집 노보살이 와서 문을 두
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으므로 문을 열었는
데, 방거사가 좌복 위에 앉아서 열반에 든
것을 보고는 그 옆 채소밭에서 풀을 매고
있는 방거사 보살에게 갔다.
“거사님이 열반에 드신 거 같소.”
풀을 매던 방거사 보살이 이 말을 듣고
는 말 떨어지자마자 한 손으로는 풀을 당
기고 한 손으로는 호미로 풀을 매는 자세
그대로 열반에 들었다.

참으로 위대한 방거사 일가족의 열반상
이로다. 참나지간에 이 몸뚱이를 벗는 영
조와 방거사 보살의 수행력도 대단하지만,
열반을 일주일 연기하는 방거사의 저력은
더욱 대단함이다. 우리가 참선하는 것은
생사(生死)를 요달하기 위함인데 참으로
위대한 도인들이 나고 죽음이 없는 큰 법
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모든 사부대중은

출가자는 더욱 분발하고, 재가자는 큰 본
보기로 삼아 결제 해제에 상관없이 게으름
없는 정진을 이어갈지어다. 그래서 하루빨
리 무수의 안목자(眼目者)들이 나와서 온
지구촌에 영원토록 부처님 진리의 법문이
선양되기를 바람이다.

그러면 모든 정진대중은 위대한 방거사
와 팔 영조 그리고 방거사 보살 이 세분의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양구(良句)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음
에 이르시기를.)

세 분 다 山僧의 주장자 三十棒을 면치
못함이다.
來年更有新條在(내년경우신조재)하여
惱亂春風卒未歇(뇌란춘풍졸미할)로다.

내년에 다시 새 가지가 있어
봄바람에 어지러히 갑자기 쉬지 못함어
로다.

산하대지에도 佛法이 있나니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법진진조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
니다.
“수천 수만의 산 가운데 어떤 것이 대수
산입니까?”
“천산 만산이나라.”

법진진조(法眞神照)선사는 사천성(四川
省) 팽주(彭州) 대수산(大隨山)에서 산문을
개창한 인연으로 이 산을 매개로 많은 선
문답을 남겼습니다. 어떤 때는 ‘대수산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천산 만산 있는
그대로서 대수산’이라고 했고, 또 어떤 때
는 ‘대수산의 한면 일(一面事)’을 물으니
‘동서남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수산
에서 사해(四海)를 품었고, 사해 속에서 대
수산을 안았으니 선사에게는 대수산이 곧
천하요, 천하가 곧 대수산이었던 것입니
다.

또 어떤 남자가 대수산 안의 불법(佛法)
을 물으니 ‘석두대저(石頭大底)는 큰(大)하
고 소저(小底)는 소(小)하느니라. 대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다’라고 대답하기도 했

던 것입니다.

큰 돌은 크다고 알되 그것에 주착(住着)
하지 말고 작은 돌은 작다고 알되, 그것에
주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지만 늘어낸 근심이 되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줄이려면 또 근심이
되는 법입니다. 길면 긴대로 짧으면 짧은
그대로서가 불신(佛身)의 현현인 것입니다.
헤아릴 때는 헤아리는 대로 불법이 있지
만, 헤아리지 않을 때는 헤아리지 않는 대
로 또 불법이 있는 법입니다.

해제를 앞두고 경산지우(徑山智愚)선사
는 “하안거 수행을 시작한 이래로 제대로
공부한 시간이 전혀 없었구나. 매일 승당
에서 정해진 시간대로 자리만 지켰고, 설
때는 누각에 올라가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
보기만 했다. 이제 해제를 앞두고는 발은 절
뚝거리고 손은 떨리는데 입에서는 ‘90일
이 벌써 다 지나가버렸다’라는 탄탄만 나
오는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대수사의 해제대중의 심경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



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둘 일이지만, 그
래도 오는 것은 오는 대로 제대로 맞이할
입니다. 결제 때 화두를 제대로 챙긴 남
자는 챙긴 대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남자
는 챙기지 못한 대로 해제공부를 계속 이
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제 때의 가야산에
는 결제대로 불법이 있고, 해제 이후의 산
하대지에는 해제대로 불법이 있는 깨달입
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해제대중은 신
조선사의 ‘대수산’ 화두를 진정으로 나의
화두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통도불범무인식(通途不犯無人識)하니
거목하증식대수(學目何曾識大隨)리오
길 전체를 밟지않고서 알 수 없는 것이니
눈뜨고 있다한들 어찌 대수산을 알겠는
가?

참회를 통해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信爲道元功德母)
갓가지 착한 법을 자라나게 하며
(增長一切諸善法)
모든 의심과 미혹을 사라지게 하고
(除滅一切諸疑惑)
위 없는 도를 드러내 보인다
(示現開發無上道).

‘화엄경’ 현수보살품에 나오는 말씀입
니다. 믿음이란 스스로 내면이 청정해지
고, 신뢰와 확신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상
태를 말합니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도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며
지혜로 건너다(佛法大海 信爲能入 智爲能
度)”고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
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밀바탕
으로 법(眞理)을 깨달아 지혜를 얻기 위함
이고, 진리를 바탕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깨달음을 통해 체험되고
이해되며, 그 법을 이해하면 가슴속에 희

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청정해지며 지혜로
워지고,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
리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
며, 그 마음은 흐르지 않는 물처럼 편안하
고(心靜如止水),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心不妄動).

그러나 신심으로 수행한다 할지라도 전
생의 업장이 많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고
번뇌망상으로 괴로움을 받게 되며, 진리를
맞보았다 해도 마진이 일어남은 마찬가지
니 비록 해제를 했다 할지라도 마진을 극
복하기 위해 진참회를 해야 합니다.
수행자의 깊은 믿음에는 진심으로 참회
(懺悔)하는 마음이 기본자세가 되어야 합
니다.

‘육조단경’에 “참(懺)이란 종신토록 잘못
을 짓지 않는 것이요(懺者終身不作), 회(悔)
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니(悔者知
於前非), 영구히 악업을 끊어 짓지 않는 것
을 이르는 참회라 한다(永斷不作 名爲懺
悔)”고 하였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생
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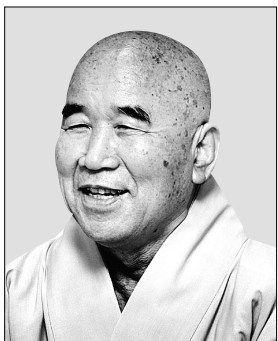
지 않고, 지난날의 악행이 일시에 스스로의
성품에서 영원히 끊어져 제거되어 버리는
것, 이것을 참회라 할 수 있습니다.

승속을 떠나 그동안 열심히 수행 정진해
온 여러분들은 해제일인 오늘 자자(自恣)
를 통해 그동안 보고(見) 듣고(聞) 의심난
(疑) 것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고, 스스
로의 과오를 고백함과 아울러 참회하고 마
음을 청정하게 함으로 새로운 신앙적 믿
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회
를 통한 청정한 믿음의 마음이 도의 근원
이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마음이고
살아서 죽음으로 거듭나는 마음이며 진정
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자의(自
意)에 죄 없음을 희열할 수 있는 진정한 수
행자로 다시 태어나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기 바랍니다.

“대분심 채워 돌아와 앉아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我人山下逢三毒(아인산하봉삼독)
逆順途中遇八風(역순도중우팔풍)
感苦紛然難制止(감고분란난제지)
也宜頹喚主人公(야의빈환주인공)



한 철을 기한하고 각자가 일대사를 해결
코자 화두와 씨름했습니다. 폭염의 무더위
도 정진의 열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잠시도 끊어지지 않는 망상은 어느새
아인의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역경과 순
경도 팔풍이라는 태풍으로 불어와 사정없
이 흔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천천면목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화두는 치솟는 분별의 산을 깎아내리는
빛자루가 되어 간신히 평정을 되찾게 했
습니다. 불현듯 앞을 가로 막아 감각하게
했던 무명과도 대적할 용기를 갖게 했습
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화두비질을 하며
지키려 했던 대중의 주인공은 안녕될 하
십니까?

오늘 그 화두가 여여 한지 점검하려고
행각을 나섭니다. 행주좌와 어떤 상황에
도 성성한 화두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불사에 생사의 미
끄럼을 타게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익
히고 친했던 길이라 느끼지도 못하는 사
이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쏟아내 버려야 합니다.
꺼여있는 수행자는 오직 지혜가 눈입니
다. 어떤 유희와 곤란이 닥쳐와도 분명하
게 판단하고 끊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틈을 놓아두면 언젠가는 큰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잠시 방심한 사이 생사마가 들
어와 자신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불퇴의
분심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맞서 물러나
지 않아야 합니다.

〈중략〉
오늘 해제는 고단한 심신을 잠시 가다
듬고 다잡는 그 이름이 해제일 따름입니
다.

이 일은 “본래 의심할 것 없는 것을 의
심했다”고 선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 그 이치를 밝히기 전에
는 마칠 수 없습니다. 결망에 한 철의 아쉬
움과 번민을 담아 산문밖에 쏟아버리고
대분심을 가득 채워 돌아와 다시 앉아야
할 것입니다.

斜風時撲面(사풍시박면) 하고
細雨又沾衣(세우유침의)라
杖拂垂林露(장불수림로) 하며
山中獨自歸(산중독자귀)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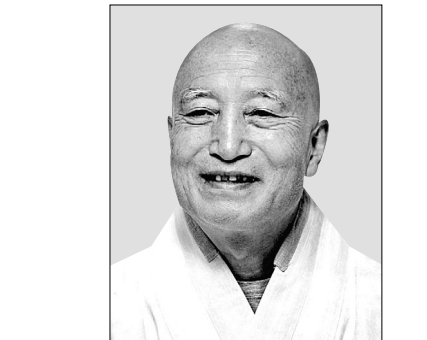
비계 부는 바람이 얼굴을 스쳐가고
가랑비에 어느 듯 옷이 젖었네.
지팡이로 풀숲에 이슬을 휘저으면서
산중으로 홀로 돌아 왔노라.

“천안이 통하니 대도는 참구할 것 없다”

덕속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인생의 이상은 무엇인가?
인생의 구경(究竟)의 목표는 무엇인가?
또 최고의 경지는 무엇인가? 어떤 마음
자리에 도달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한다.
또한 안심입명(安心立命)이라 한다.
그 경지는 기쁨이요, 무아요, 자타일여
(自他一如)의 세계요.

물아(物我)가 둘이 아니요, 대조화요, 범
열이다.
우주와 자아가 혼연일체가 된 세계이다.
그것은 자유자재요, 무애원융의 세계다.
그것은 안심입명의 경지다.
마음이 편안함이요, 두려움과 번뇌가 없
는 것이요, 불안과 초조가 없는 부동의 경
지다.
혼연자약(渾然自若)하여 흔들리지 않는
경지다. 일체종지를 이루고 심호를 성취한
자리요.



자성삼보(自性三寶)를 성취한 자리다.
밝고 신령스러워 조각이 없는 자리요.
탐애를 아주 떠나 맑고 깨끗한 광명이 시
방세계를 비추고,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어

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과거, 현재가
끊어지고 홀로 떠나니 당당하여 법과 법이
원만히 통하고 티끌과 티끌이 해탈한 자리
더라.

雲捲秋空月印水(운권추공월인수)
寒光無際誰與談(한광무계誰與談)
割開透地通天眼(割開透地通天眼)
大道分明不用參(大道分明不用參)

구름 걷힌 가을하늘 달은민강에 비치는데
무한한 진리의 광명을 누구와 말할까.
특 트여 천안으로 통했음이여
대도는 분명 참구할 것이 없더라.

수좌들이여 은산철벽은 만나보았는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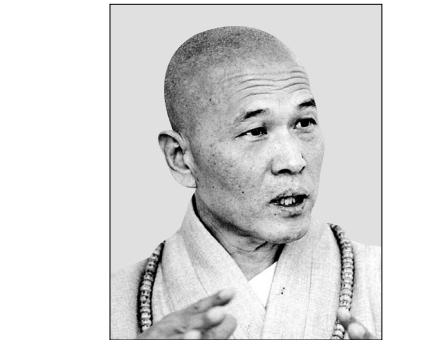
西山大師께서 頌하시기를
萬法由來空裏花(만법은 본래 허공 속에
핀 꽃과 같은데)
豈宜徒算海中沙(어째서 부질없이 바닷
가 모래를 헤아리는가?)
但從鐵壁銀山透(다만 공안을 쫓아 은산
철벽을 뛰어넘을지언정
不問如何又若何(참선하는 남자는 이유
여하를 묻지 마라
하셨습니다.

삼하구순안거 무더위 속에 정진하시느
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화두
참구하기를 은산철벽을 만난 나그네처럼
귀를 잡으려는 고양이처럼 전심전력으로
본참공안을 참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가
운데 절박성이 부족하거나 악각약지(惡覺
覺)

惡知)의 습관성으로 느슨한 시간보내기의
안거였다면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정
진이 여윌하신 스님들께서도

첫째는 선지식에게 점검하고
둘째는 진척이 없는 공부라 생각되며 미
진한 것들이 있는 분은 삼속으로 들어가 지
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실천으로 점검해 보
는 것입니다. 자기공부와 현실현상 속에서
어떠한 차이와 괴리감이 있는지 실천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곧 공부입니다. 느슨해진
상태나 공부상의 병폐들을 실천해 봄으로
서 걸러지고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념만 쌓이고 침공체적
(沈空滯寂)으로 자기개조의 혁명은 영원히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중득활(死中得
活)이니 겸참삼십년(更參三十年)이니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결음마 연습 없는 사람
은 평생 결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열



심히 결음마 연습을 했어야 했고 서고 달리
기가 활발발한 무애자재의 모습이 되는 것
입니다.

수행자는 지금까지의 삶과 앓을 전부타
파하고 출신활로의 길을 찾는 정진기간에
는 굵고 굵은 정글의 맹수가 먹이만 생각하
듯 참구에 가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만약 깨달아야만이 실천할수 있
다는 잡념이나 알아야 행(行)을 할수 있다
는 생각 등의 자유주의적 사고는 허물투성
이 인것입니다.

답을 알거나 느끼면서 하는 공부도 잘못
됨이요, 선행(作福作善)과 보살행이라도
천당불찰에 머물며 오가는 행복을 가질 수
는 있으나 그와 같은 어떤 경지라도 업식환
영의 반복임을 알아야합니다. 일생궁극적
인 의미는 공이라느니 하면서 남들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실수를 허서는 않습니
다. 부처님이 가던 길도 가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인생 자기가 가는 길을 터득해
가지 못하고 모두 모두가 공문(空門)에 출
입하는 식객이 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위에든 서산스님 계승같은 지침이 왜 나
왔겠습니까?

참선수행이던 무슨 공부이던 모든 것들의
귀착점은 요의중생(饒益衆生)이어서 중생
현실고를 해결해 주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은산철벽을 만나보셨습니까?
오늘은 해제일이나 화두 참구하는 공부
인들은 의심이 진행되는 한 결제요, 공안타
파하여 실천행에 나서는 날이 진정한 해제
가 될것입니다.